

“학생은 고객 아니다”
8 홍기삼 前 총장 학술세미나

“대숲에서 나를 찾다”
10 표충사 녹음영상 템플스테이

분단 넘어 평화통일로!
11 사방세계-민추본 평화통일순례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17 선지식-행복마을 옹타 스님

불교 학회 ‘소통의 바람’ 불까

#사례1=지난 5월 17~18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불교학술회의. 대회 소식이 상경한 A씨는 접수 후 자료집을 받고 행사장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인도불교, 중국불교, 선불교 등 10개 분과마다 15분 단위로 줄 잇는 발표에 자료집을 넘기며 강의실마다 기웃거리기 바빴다. A씨는 “자료집을 미리 봤더라면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례2=5월 22일 한국선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동국대에서 열렸다. 4명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했다. 정기총회까지 걸친 날이라 발표시간도 토론 시간도 촉박했다. 시간 경과를 알리며 목탁을 울리는 사회자 모습은 아찔한 곱았다. 청중도 적어 학회가 열린 다향관 세미나실은 빈자리가 많았다.

학회를 찾는 이들은 항상 목마르다. 발표논문을 미리 받아 읽고 싶은 지적호기심에서, 또 ‘그들만의 전치’가 아닌 TV 토론 프로그램처럼 질의·응답이 열린 토론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소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갈망 때문이다.

밝은사람들, 연찬회 발표·참석자간 소통 모색 교재 先제공·사전질문 접수 등 새 시도 눈길

刊로 출간한 것. 기존 학술세미나는 당일 배부된 자료를 단시간에 발표·토론하고 끝내던 것이 관례였다. 이를 위해 밝은사람들은 제4차 연찬회를 마친 2007년 12월, 연찬회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를 선정했다. 상단수 학회가 대회 2~3개월전 발표자를 정하는 것부터 달랐다. 발표자는 초기불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유식불교: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선불교: 이덕민 교수(창원전남대), 서양철학: 박찬국 교수(서울대), 심리학: 권석만 교수(서울대), 생물학: 우희종 교수(서울대)로 관련 분야의 권위자들이다.

좌장 김종욱 교수(동국대)는 발표자들에게 집필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발표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최대한 주제에 부합된 논문을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기획부터 자료집 출간까지 소요된 시간은 2007년 12월 열린 제4회 학술연찬회 후부터 6개월여가 소요됐다. 발표자와 참석자의 소통을 가로막던 교재를 먼저 발간하고 나니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다.

행사 당일 주제발표 시간을 줄이고, 토론 시간을 늘렸다. 짜임새 있는 진행을 위해 참가자들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질문을 접수받는다. 밝은사람들은 이를 발표자에게 행사 전 전달해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재 선제공, 사전질문 접수, 토론 시간 확충 등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의 변화가 기획에 의한 것이라면 당일 행사는 철저히 연출된다. 김종욱 교수는 “사회자 역할이 바뀐 것이 이번 학술연찬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계만 보는 것이 아닌 교재, 토론내용, 질문 등 행사의 A부터 Z까지 모두 연출자 입장에서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학회에서 발표자와 참석자는 자료집을 매개로 소통한다. 발표논문이 영어로 쓰였고 한국어로 말이 오가도 학회에서의 모든 대화는 발표논문에 한정될 정도로 자료집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밝은사람들은 주최자와 발표자에 정제됐던 학회를 소통시킬 열을 제대로 짰다고 평가받는다. 미래학자들은 “지금은 정보 공유의 시대다. 소통되지 않는 정보가 권력이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철저한 기획과 연출로 학회에 ‘소통’의 바람을 불고 온 밝은사람들의 ‘육량’은 변화의 동력이었다.



호남 불자들이 “美 쇠고기 재협상을” 호남지역불교단체(광주불교사임연합회, 광주전남포교사단, 광주불교교육원, 호남불교문화원 등)는 시민 1만여명과 함께 5월 30일 광주충장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도회 및 촛불집회를 가졌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련기사 3면>

현대불교 ‘이상시문학상’ 제정

개방적 아방가르드 추구, 禪과 문학의 접목 활성화 기대

‘현대불교’가 시 전문 주간지 <시와세계>와 공동으로 ‘이상시문학상’을 제정한다. 이상(李箱)은 1910년 9월 23일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7년 4월 17일 일본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식민지 시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지향한 문학적 태도는 온건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과격한 모더니즘이고 그런 점에서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요약된다. 그의 시는, 문학은 예술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미적 부정과 이런 현실 속에서 생산되는 문학, 글쓰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모더니스트들과 구별되고 이런 차이가 아방가르드 정신과 통한다. 물론 역사적 아방가르드는 끝났다. 그러나 광의의 아방가르드 전위는 살아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소수의 선구가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는 문학과 예술의 제도성에 도전하고 답답한 전통과 인습과 미학을 부정하고 일상과 예술, 일상과 문학의 단절을 줄이는 부르주아 시학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한다.

이 시대 우리 시가 답답하고 께기가 없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의 전위성, 도전성, 실험성, 한마디로 아방가르드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시정신, 문학정신, 예술정신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이 요구된다. 한편 21세기 우리 시의 전위는 한물 간 서양 아방가르드의 모방이 아니라 동양적 사유를 이론적 토대로 할 필요가 있고 선(禪)은 우리의 후기 현대성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처한 21세기 서양 철학의 동양적 대안이고 이 시대 방향을 잃은 우리 삶의 화두이다. 요컨대 선은 우리 시의 아방가르드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토대이고 실천적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한물 간 모더니즘이 아니라 개방적 아방가르드이다. 따라서 ‘이상시문학상’은 이상의 단순한 모방이나 아류가 아니라 이상의 아방가르드 정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선불교적 감성과 직관과 사유를 지향하는 시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대시, 시조, 동시, 가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개방성, 지적 모험, 치열한 자기회생을 보여주는 시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 상금: 2천 만 원
■ 시상일: 2008년 9월 23일
■ 심사위원: 추후 발표
■ 운영위원: 혜월 · 高敬眞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시와 세계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 취급업무: 민사·형사·가사·행정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울이온, 안젤리타,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진화발전적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값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득한 향탕수로 관불, 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동원향당
향·조각·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부처축첩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이천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